

[준기획] >> 3면
제59대 설캠 총학 선거

[기획] >> 4면
명수당 외부인 출입

[사문] >> 8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학술] >> 9면
북한 러시아 파병

캠퍼스가 캠핑장이 된 이유는? 우리학교 외부인 출입 문제의 현주소

최근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의 명수당이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해졌으나 외부인 관련 대책 미비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외부인 출입 문제 현황△외부인 출입 문제 원인△야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 4면에서 계속

장은솔 기자 09eunsol@hufs.ac.kr

우리학교, 2024년도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 6명 배출

우리학교는 지난 14일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일반외교 최종 합격자 44명 중 총 6명을 배출했다. 특히 이번 해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서 김광수(사회·정의 13) 씨(이하 김 씨)가 1,255명의 응시자 중에서 수석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김 씨는 법률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불확실성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강인한 멘탈이 비결이었다”며 “기출은 올해 문제를 읽기 위한 나침반이다”고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또한 “책 ‘하나님의 대서’를 쓰신 김하중 대사를 생각할 때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알 수 있었다”며 “나라를 구할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나라의 외교관이 될 것이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우리학교는 지난해 7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데 이어 이번에 수석 합격자를 포함해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국가 전략 인재 사관학교로서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우리학교는 △박상미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대사△박진 외교부 장관△윤덕민(사회·정의 79) 주일 한국 대사△조현동(서양어·스페인어 78) 주미 한국 대사 등 외교 무대에서 주목받는 대표적인 동문 및 교수진을 통해 글로벌 대학으로서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지연 우리학교 공공인재개발원장은 “우리학교 공공인재개발원(이하 공개원)에선 외교관 배출을 위해 △모의 면접 진행△전담 지도교수 배정△전용 열람실 제공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개원에선 다방면으로 지원 체계를 강화해 외교뿐 아니라 △교육△법률△언론△행정△회계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노벨문학상과 번역 이야기’, 2024 문학나눔 도서 수필 분야 선정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이하 출판원)이 발간한 도서 ‘노벨문학상과 번역 이야기’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에서 수필 분야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 해당 도서는 △번역가△언론인△출판 편집자 등 다양한 시선에서 노벨문학상을 바라본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한다. 또한 이 책은 노벨문학상이 가지는 사회적·문화적 의미와 함께 수상 작가들이 작품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열정과 고민을 담고 있어 문학과 번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해당 도서는 우리학교 교수진을 중심으로 번역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도 했다.

한편 위 도서는 우리나라 번역학계를 대표하는 우리학교의 교수진이 참여해 번역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며 그 가치를 더했다. △이난아 튀르키예·아제르바이잔학과 교수△정민영 독일어과 교수△정은귀 영미문학·문화학과 교수△최성은 폴란드어과 교수 등 우리나라 번역계를 이끄는 학자들이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의 작품을 번역하며 겪은 에피소드와 번역 과정에서의 철학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박연관 출판원장(이하 박 원장)은 “이 책은 단순히 번역의 기술

적 과정만 다룬 것이 아니라 번역이란 행위가 문화 교류와 문학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준다”며 “우리학교가 국내 문학과 번역 출판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입증하는 사례다”고 말했다. 또한 박 원장은 “이번 선정은 우리학교가 문학 발전과 대중적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고 평가했다.

우리학교 출판원은 학문적·문화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도서를 발간하며 문학과 학문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다. 박 원장은 “문학과 번역은 서로를 통해 더욱 깊고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학문과 문학을 연결하는 도서를 통해 우리학교만의 독창적인 출판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출판원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학 출판뿐 아니라 번역과 학문적 연구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노벨문학상과 번역 이야기’는 우리학교의 학문적 깊이를 바탕으로 한 또 하나의 성과로서 문학과 번역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한줄명...

외대학보 기자들의 한줄 기사

우현 : 부족한 편집장 밑에서 일하느라 다들 고생했고, 또 미안했어요. 앞으로의 외대학보를 응원합니다 :)

병찬 : 우리 학교의 어두운 부분까지 비추주는 학보의 불빛이 다음 학기에도 정직으로 빛나길 응원합니다!

휘영 : 외대학보 파이팅 ^_ ^

승원 : 함께해서 즐거웠고 다시... 만나자

예원 : 110기 환영해 ^_ ^

진하 :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다들 하는 일 잘 되시길 바랍니다!!

승준 : 외대학보의 신문에 “귀추가 주목된다.”

소영 : 외대학보의 아름다운 열정은 계속 됩시다! 외대학보 화이팅!

소윤 : 외대학보,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특별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영빈 : 힘들었지만 정말 뿌듯했다!! 110기 분들 반가워요 :D

민서 : 마감 덕분에 새벽의 적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처음 알았습니다.

은솔 : 돌아보니 좋은 추억만 남은 외대학보 생활. 또 보자 외대학보!

소희 : 기사 쓰며 추억도 함께 써 내려간 시간 재미있고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기사를 써나갈게!



우리학교 아랍어과, 2024 세계 아랍어의 날 기념 아랍 학술문화제 개최

우리학교 아랍어과는 한아랍문화교육연구센터와 함께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휠라아쿠슈네트 홀에서 외교부와 주한 사우디아라비아(Saudi Arabia) 대사관의 후원을 받아 2024 세계 아랍어의 날 기념 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아랍어과 교수진과 재학생 약 90명이 참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는 윤은경 아랍어과 학과장(이하 윤 과장장)의 개회사와 김민정 우리학교 재무·대외부총장의 환영사로 시작했다. 행사장 입구엔 아랍어과 소모임 '타브르'가 준비한 사우디아라비아 개황 자료 전시와 '바이트 알 히크마' 소속 학생들이 기획한 아랍 문화 및 번역 작품 특별 전시회가 동시에 열려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윤 과장장은 개회사에서 "아랍 학술문화제가 매년 발전하며 아랍 문화를 대표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압둘라지즈 압둘라흐만 알다예(Abdulaziz Abdulrahman Aldayel)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문화원장은 축사에서 우리학교에서 열린 이번 행사를 축하하며 "학생들이 아랍 문화를 이해하고 아랍어 실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운정 외교부 중동1과장(이하 장 과장)은



▲제3회 아랍 학술문화제 행사 모습 (출처: 우리학교 아랍어과)

축사를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도 외국어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아랍어와 아랍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부했다. 장 과장은 UCC 발표대회 심사도 직접 참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남기창 아랍어과 총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후배들의 열정에 박수를 보냈다.

이번 행사에선 △국제개발△아랍 시 낭송△아랍어 말하

기 대회△아랍어 캘리그래피(Calligraphy) 쓰기 대회△아랍 퀴즈 대회△UCC 제작 발표 대회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특히 UCC 제작 발표 대회에선 시리아 난민 △아랍 음식 문화△우리나라-아랍 교류사△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집트 문화△중동의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주제로 참가자들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아랍어 말하기 대회에선 학생들이 자유 주제로 아랍어 실력을 겨뤘다. 아랍 퀴즈 대회는 학생들의 아랍 지역 지식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아랍어 캘리그래피 쓰기 대회에선 학생들이 아름다운 서체로 아랍어 문장을 표현하며 창의성을 발휘했다.

시상식에선 UCC 제작 발표 대회와 아랍어 말하기 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이 수여됐다. 또한 아랍 퀴즈 대회는 1등부터 5등까지 수상했고 캘리그래피 쓰기 대회는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나누어 총 14명의 학생이 수상했다.

이번 아랍 학술문화제는 아랍어·아랍 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로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우리학교-한국e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지난달 12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이덕선 회의실에서 박정운 우리학교 총장(이하 박 총장)과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이하 김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이하 MOU)이 체결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에는 △대학(원)생 대상 현장 교육 및 실습 지원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감면△협력 프로그램 공동 개발△행사 후원 및 홍보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총장은 협약식에서 "e스포츠 산업과 학문의 연계는 이제 필수적인 과제가 됐다"며 "글로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e스포츠는 세계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다"며 "한국외대가 글로벌 e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을 개설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로 협회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우수 인재 양성과 연구 기반 마련에 힘을 것이다"고 뜻을 전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우리학교가 신설한 글로벌 e스포츠 매니지먼트 전공을 중심으로 이뤄진 협력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박 총장은 "우리학교는 스포츠와



▲왼쪽부터 김로한 한국e스포츠협회 기획국장, 김철학 사무처장, 김영만 협회장, 박정운 한국외대 총장, 김민정 재무·대외부총장, 김남수 미래위원회위원장, 박성희 글로벌스포츠학과 주임교수(출처: 전략홍보팀)

e스포츠 산업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며 "학생들이 이론과 실습을 겸비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우리학교 논술고사 실시, 45.4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2024학년도 논술고사 수험생 응원하는 한국외대 홍보대사 HUFs HANA(출처: 전략홍보팀)

지난달 23일과 24일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에서 2025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전형의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이번 논술전형은 473명 모집에 총 21,502명이 지원하여 45.4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학교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특히 지난해 신설된 Language & AI 융합학부는 174.14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2년 연속 최고 경쟁률을 자랑했다.

우리학교 논술전형은 논술고사 100%로 선발하며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된다. 설캠 모집단위는 2개 영역 등급 합 4 이내·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가 기준이며 글로벌캠퍼스는 1개 영역 3등급 이내·한국사 영역 4등급 이내여야 한다. 논술 문제는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고교 교육과정 내 통합교과형으로 출제됐고 자연계열

은 수학 I 과 수학 II 범위에서 출제됐다. 시험은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오전과 오후 총 4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고사 당일 교내 공간은 수험생만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됐고 학부모와 외부인 출입은 통제됐다. 수험생은 △검정색 필기구△신분증△수험표△컴퓨터용 사인펜을 반드시 지참해야 했다. 고사장은 시험 시작 10분 전부터 출입이 통제됐으며 교내 차량 출입 또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엔 대중교통 이용

과 여유 있는 이동이 권장됐다.

우리학교 입학처는 "논술전형은 수험생들의 창의적 사고력과 논리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고교 교육 과정 내에서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고자 하는 취지를 강조했다. 특히 Language & AI 융합학부의 높은 경쟁률을 두고 "e스포츠와 AI 분야의 융합적 가능성에 대한 수험생들의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논술고사의 성공적인 종료 속 공정한 논술 전형 운영으로 신뢰받는 우리학교의 입학 과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제 4회 HUFStory 북토크 행사 개최해



▲제 4회 HUFStory 북토크 행사 (출처: 우리학교 도서관)

지난 2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 4회 HUFStory 북토크(이하 북토크)'가 개최됐다. 이번 북토크에선 신 교수의 저서인 '내가 사랑한 파리의 작은 미술관'을 통해 파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미술관 8곳을 소개하며 그 속에 예술적 가치의 의미를 풀어냈다.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파리의 화가와 수집가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의 가치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제작△수집△전시했던 사람들의 삶과 열정을 소개했다.

지난해 3월 15일에 처음으로 진행됐던 북토크는 '외대인에게 직접 듣는 책 이야기'란 취지를 살린 학부생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와 같이 설캠 도서관에선 비교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북토크를 기획 및 진행하고 있다. 이번 2024학년도에는 매 학기 2회 총 4회의 북토크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신정아 우리학교 프랑스어학과 교수(이하 신 교수)가 진행했다. 신 교수는 현재 한국책백학회와 한국프랑스고전문학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프

랑스어권연구국제협회(CIEF) 운영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강연자인 신 교수는 "학교 도서관이라는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북토크에 찾아준 청중과 눈을 맞추며 파리의 작은 미술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참 기뻐했다"며 "이러한 도서관 북토크 행사가 계속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러한 신 교수가 지은 책으로는 '노랑신호등'과 '바로크'가 있으며 옮긴 책은 △수전노 외△신앙과 지식·세기와 용서△최후의 인간△페드르와 이폴리트 등이 있다.

강예원 기자 08yewon@hufs.ac.kr

제59대 총학생회 ‘박동’ 당선, 그 과정과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28일까지 이뤄진 투표를 통해 제59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이하 설캠 총학)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 ‘박동’이 당선됐다. 지난해와 달리 단선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박동’은 투표를 30%를 넘기며 최종 당선됐다. 다음해엔 우리학교 제13대 총

장 선거가 예정돼 있기에 ‘박동’의 행보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공개청문회 속 박동이 그린 미래△선거 과정 및 결과를 알아보자.

◆공개청문회 속 박동이 그린 미래

지난달 21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우리학교 사이버관 소강당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제59대 설캠 총학 선거운동본부 ‘박동’(이하 박동)의 공개청문회(이하 공청회)가 열렸다. △외대학보△디아거스(The Argus)△외대교육방송국△외대교지 등 다양한 학내 언론이 참가했으며 박동의 공약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외대교육방송국은 총장선출권 비율과 총장선출제도 관련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나민석(사회·정외 22) 정후보자(이하 나 후보자)는 “가장 이상적인 △교수△직원△학생의 투표 반영 비율은 3:3:3이다”며 “당장 실현은 어렵겠지만 학내 삼주체와의 연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외대학보는 총장 선출 제도에 대한 박동의 집중으로 인해 우리학교 학생 복지에 대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고 나 후보자는 이에 대해 “우리학교 학생들의 생활과 밀접한 주제부터 최선을 다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송준우(상경·경제 22) 부후보자(이하 송 후보자)는 이에 대해 “문화와 복지 시설 관련 문제가 가장 잘 체감되는 분야임을 알고 있다”며 “우리학교 학생들의 당장의 권리와 미래의 권리 모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다양한 공약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3개 공약을 묻는 질문에 나 정후보자는 “△시설 안전△졸업 제도 개편△총장 선거 대응과 관련된 공약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해당 공청회는 제58대 총학 ‘여운’ 인스타그램(Instagram) 공식 계정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공약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



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국가 공인 자격시험 지원 확대△도서관 개방 시간 연장△성적 평가 비율△학내 낙후 시설 관리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나 후보자는 “유능하고 전략적인 총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어떤 시간도 논의할 수 있는 열린 총학생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박동 선본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영상 및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다.

◆선거 과정 및 결과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제59대 설캠 총학생회 선거가 개최됐다. 선거 마감 날 오후 6시 30분까지의 투표율이 30%를 넘기며 개표 결과 투표자 2874명

중 2721명이 박동을 선택함으로써 제59대 설캠 총학으로 선거운동본부 박동이 최종 당선됐다.

선거는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으로 동시 진행됐다. 먼저 우리학교 학생들은 ‘유니보트(Univote)’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투표가 가능했으며 학번 및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오프라인 투표의 경우 기표소 위치는 △국제학사△붉은광장 1층△사이버관 1층△인문과학관 1층이었으며 온라인 투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학번 및 전화번호를 작성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다. 다만 투표가 진행되는 이틀간 대실 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전국에 많은 눈이 내려 우리학교 많은 학생들이 통학에 지장을 겪었다. 이에 따라 기표소를 통한 오프라인 투표는 우리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용률이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자 A 씨는 “기표소 한 곳에서 한 시간에 2-3명 정도의 학생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감상 예년보다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투표에 참여한 학생이 적다”고 언급했다.

당선 직후 박동은 “구성원 개개인을 위한 체계적이고 섬세한 면과 외대 발전을 위한 거시적 담론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총학생회가 되겠다”며 “기존 총학생회의 본령을 잊지 않으며 제13대 총장 선출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용기있게 마주하는 유능한 총학생회의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포부와 다짐을 밝혔다.

박진하 기자 08jinha@hufs.ac.kr

후속보도

교내시설 대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지난 1086호 기획 기사에선 교내시설 대관 문제를 다뤘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크고 작은 시설 대관 문제들이 학생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

에 △교내 시설 대여 현황△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교내시설 대여 현황과 문제점

우리학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기회△문화적 기회△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내시설 대관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들을 통해 우리학교 학생들은 각종 동아리 활동과 행사 등을 진행할 수 있는 학내 공간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의 불편함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외대학보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73%의 학생이 우리학교 대관 시스템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지난해에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비해 7% 정도 감소한 수치였다. 응답한 학생들은 △시설마다 상이한 대관 방법(38.5%)△수요에 비해 적은 대여공간(33%)△양캠퍼스간의 교차 대관 불가(11%) 순으로 우리학교 대관 시스템의 불만을 가졌다고 답했다.

우리학교 교내 시설의 대관 방법은 △강의실△스터디룸△체육시설△행사시설에 따라 다르다. 이를 대관하기 위해선 원스톱 대실 시스템이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에서 예약하거나 각자 다른 기관의 전화번호로 예약해야한다. 이와 같이 공간마다 서로 다른 대관 신청 방법을 가진 것이 번거롭다는 반응과 더불어 각 기관의 전화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불편하던 반응이 주를 이뤘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대관 방법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과 일부만 아는 학생들이 각각 20%와 26.7%로 조사됐다. 이처럼 대관 방법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교내시설 대관 시스템의 또 다른 문제점은 양 캠퍼스(이하 양캠) 간의 교차 대관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이 점은 양캠을 오가며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은 우리학교의 이원화 캠퍼스 특성과 맞물려 학생들의 불편을 가중하고 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캠퍼스의 시설을 대여하지 못해 대

관이 필요할 때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임경은(통번역·태국어 22) 씨는 “스터디룸을 대관하고 싶을 때 설캠시설의 대관이 불가해 매번 스터디카페(study cafe)를 찾았다”며 “양캠 모두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 많은 만큼우리학교 강의실의 교차 대관이 가능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반면 학내 시설 대관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차 대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40%로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씨는 설문조사에서 “다른 캠퍼스 소속 학생들이 시설을 대관하게 되면 해당 캠퍼스 학생들이 대관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부족한 대관 가능 공간 또한 문제였다. 글캠프의 경우 대관이 가능한 스터디룸은 △백년관 1층 GPS라운지△어문학과 4층 멀티프라자△인문경상관 1층△자연과학관 1층 PC실에 위치하는데 이중 어문학과 스터디룸의 경우 시험 기간이 되면 거의 모든 시간대에 대실이 마감돼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또한 대실 서비스의 특성상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 학생들의 불만이 잦은 상황이다. 우리학교 재학생 신지원(통번역·태국어 22) 씨는 “시험 기간마다 스터디룸 대여 서비스를 이용해 공부하고 싶지만 인기가 많아 대여를 하지 못했던 적이 많다”며 “스터디룸을 대여하고도 나타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 스터디룸을 원하는 날에 이용하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고 답변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먼저 교차 대관에 관해선 다른 학교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앙대학교(이하 중앙대)의 경우 안성캠퍼스와 서울캠퍼스 전 학생이 직접 각

건물별 교학지원팀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강의실을 대여할 수 있다. 추가로 우리학교 도서관 시스템의 경우 우리학교 학생들은 각각 글캠프와 설캠 모두의 독서실 좌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도서관의 양캠 운영 방식과 같이 교내시설 대관 또한 양캠의 교차 대관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양캠 교차 대관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학생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는 “현재 설캠에선 글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 설캠 강의실을 전화로 신청받아 강의실을 일부 대여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글캠 총괄지원팀은 “현재 시스템 하에서 대관이 불가능한 사안은 논의를 해볼 예정이다”며 “다만 설캠의 사례와 같이 전화로 시설을 대관할 수 있게 한다면 인원 확인이 불가한 문제가 있어 전화로 강의실 대여를 해주는 것은 어렵다”고 답했다.

부족한 대관 시설의 경우 우리학교의 비어 있는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현재 우리학교는 비어 있는 강의실과 공간이 존재한다. 해당 공간을 학생들에게 대여한다면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다. 이에 글캠 총괄지원팀은 “대관 시설의 경우 향후 논의를 통해 설캠 및 글캠 학생들이 강의실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겠다”며 “현재 대관이 필요한 시설의 마이크나 난방 등을 총괄지원팀에서 직접 관리하기에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답했다.

교내 시설 대관은 단순히 공간을 빌려주는 행위를 넘어서 학교와 학생의 상호작용을 증진하고 학교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수단인 만큼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어떻게 보완될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캠퍼스가 캠핑장이 된 이유는? 우리학교 외부인 출입 문제의 현주소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우리학교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명수당이 가을 단풍 명소로 유명해지며 교내 외부인 출입이 급증하고 있다. 학교 홍보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교수△교직원△학생들의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외부인 출입 문제 현황△외부인 출입 문제 원인△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외부인 출입 문제 현황

지난달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학교 글캠의 명수당 및 근방 산책로가 가을 단풍 명소로 소개되며 교내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들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일각에선 방문객 증가가 우리학교 홍보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외부인 방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인 피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외대학보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2.7%가 '외부인의 명수당 출입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명수당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선 △광역버스 운행 차질△돗자리 및 캠핑장비로 인한 잔디 훼손△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배변 처리 문제△쓰레기 처리 미흡△안전 문제△외부인의 교내 시설 이용으로 인한 재학생 피해△주차 문제 등으로 학생뿐만 아니라 교수 및 교직원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며 학교 측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부인 출입 급증 이후 가장 큰 불편을 야기한 문제로 △광역버스 운행 차질(43.8%)△주차 문제(30%)△외부인의 교내 시설 이용으로 인한 재학생 피해(12.5%)△쓰레기 처리 미흡(7.5%)△반려동물 출입으로 인한 배변 및 안전 문제(2%) 순의 응답이 이어졌다.

차를 타고 방문하는 외부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역시 적지 않다. 대표적으로 △교통마비△셔틀 운행 방해△학생 안전 위험 등의 문제가 있다. 실제로 글캠은 도로 구조적 특성상 갭에 주정차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교통에 차질이 생기기 쉽다. 우리학교 재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엔 갭길을 따라 차량이 연이어 주차돼 있는 사진과 같이 주차 문제를 지적하는 각종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게다가 교내 교통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외부인들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실제 피해 경험에 대한 질문에 '외부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운전해서 부딪힐 뻔 했다'는 응답도 존재했다.

이울러 글캠 내 버스 차고지를 이용하는 광역버스의 교내 진입 및 출차가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기존 운행되던 1500-2번 버스의 경우 교내 진입이 불가해 교외에서 회차하기도 했으며 일부 학생들은 부득이하게 지각이나 결석을 하게 되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제 설문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피해 경험을 묻는 질문에 '정문에서 출차 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혹은 '셔틀버스가 교문을 통과하지 못해 도중에 내린 적이 있다' 등의 응답이 기록됐다.

외부인의 교내 시설 이용에 별도의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설문조사 결과 △가족 단위의 관광객 및 반려동물 동반 출입으로 소음이 야기돼 학습 환경이 저해된 경험△동아리 활동 중 외부인으로부터 자리 양보 요청을 받은 경험△화장실 이용객 급증으로 인해 오랜 시간 대기한 경험이 있다는 학생들의 응답이 확인됐다. 교양관 1층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A 씨는 "학교를 개방하는 평일엔 교양관 1층 라운지(Lounge)를 이용하는 외부인도 많다"며 "주말엔 편의점으로 찾아와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으니 교내로 통하는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하는 외부인들이 많다"고 밝혔다. 외부인들의 경우 교내 시설 이용 수칙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가 됐다. 실제로 A 씨는 "교내로 반려견을 데리고 들어오는 외부인에게 주의를 줬는데 도리어 불쾌한 말을 들었다"며 "주차료 지불을 이유로 교내 시설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외부인들이 많다"고 전했다.

동시에 쓰레기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A 씨는 "외부인들이 배달 음식 섭취 후 발생한 쓰레기를 편의점에 그냥 쌓아두고 나간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는 주말에 무인으로 운영되는 교양관 내 편의점의 특성상 쓰레기의 상시적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로 이어지며 악취 및 미관 저해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국 A 씨는 편의점 관리를 위해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보행 방해△사진 촬영으로 인한 초상권 침해△소음에 의한 수업 방해 등으로 많은 재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인 출입으로 인해 논란이 거세지자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는 인스타그램(Instagram)을 통해 명수당 이용 수칙에 대해 다시 한 번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위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숙사 앞까지 줄지어 출차중인 외부 차량들

◆외부인 출입에서 파생된 문제의 원인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캠퍼스 이용 수칙이 엄격히 준수되지 못했다는 점이 지적된다. 특히 교내 반려동물 출입 금지와 관련된 이용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견학(공과·산업경영 24) 씨는 "차 안에 몰래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목격담을 전했다.

이와 더불어 명수당 이용 수칙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다. 그동안은 우리학교 학생들만 명수당을 이용했기에 이용 수칙을 따로 명시해두지 않아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외부인의 경우 이용 수칙에 대해 아는 바가 전무하니 자신도 모르는 새에 이용수칙을 어기기도 했던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5일 반려견을 동반한 채 우리학교 명수당을 방문한 외부인 B 씨는 "반려견 출입이 안 되는지 몰랐다"며 "따로 쓰여 있지 않고 관련해서 안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전했다.

세 번째 원인으로는 현재 글캠의 주차 정산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글캠의 정문을 통과하는 차선은 총 두 개다. 그 중 한 차선은 등록 차량 전용으로 정해진 정산을 따로 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다른 차선은 미등록 차량 전용으로 정해 주차 정산 기계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등록 차량이 등록 차량 전용 차선으로 지나가 주차 정산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주차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고 등록 차량 전용 차선으로 출차하는 경우를 목격할 바 있다'고 제보하기도 했다.

교내 주차 공간 자체가 부족한 것 또한 핵심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글캠 총괄지원팀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토요일과 17일 일요일의 입출차건수는 각각 3,280대와 3,208대로 15일 금요일에 비해 약 5배가량 많다. 그런데 총괄지원팀 통계에 따르면 기숙사와 국제사회교육원(이하 국사원) 주차장을 제외한 글캠 전체 주차장 수는 총 663개로 기숙사와 국사원 주차장을 모두 합쳐도 849개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절대적 주차 공간 부족이 갭길 주정차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외부인들이 주차 공간을 찾아 제대로 주차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교수△교직원△학생의 주차 자리가 줄어드는 것이므로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앞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말에 외부인들이 교양관이나 백년관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기숙사 주차장까지 와서 주차를 하는 바람에 주차하기가 힘들었다'거나 '재학생들 주차 자리도 부족해 외부인들까지 더해지면 접점산중이다'며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마정현(공과·컴전 18) 씨는 "주차 공간 부족 때문에 수업 시간에 늦을까 봐 걱정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외부 차량 때문에 학생들이 주차할 공간을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평소엔 수업 10분 전에 출발했지만 요즘엔 20분 전에 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비단 재학생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교양관 1층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C 씨는 "항상 차를 교양관에 주차했었는데 최근엔 자리가 없어서 어문학관까지 가서 주차해야 한다"며 고충을 털어냈다.

마지막으로 SNS 상에 잘못된 정보가 범람하는 것 또한 문제의 원인이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인스타그램에 명수당을 검색하면 '교내 반려동물 출입 가능'이나 '돗자리 이용 가능' 등과 같이 잘못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는 우리학교 이름을 '한국어 외국 대학'이라고 잘못 표기한 게시물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

자 학생들이 직접 나서 정정 댓글을 달거나 계정 주인에게 수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후 대부분의 잘못된 정보들은 수정되거나 삭제됐지만 일부 게시물은 여전히 잘못된 정보가 수정되지 않은 채 공유되고 있다. 글캠 총학에서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관련 수칙을 안내했으나 이미 타 게시물을 통해 잘못된 정보가 널리 퍼져 관련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명수당에 방문한 외부인 고다은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캠핑용 의자를 가지고 온 게시물을 보고 방문했는데 실제로 출입 제한을 당해 상당히 당황스러웠다"고 밝혔다.

◆나아가야 할 방향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우선 명수당 근방에 쓰레기통을 비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학교 명수당에서 가장 가까운 쓰레기통은 교양관 1층 편의점 옆에 있는 쓰레기통이다. 결국 재학생이든 외부인이든 명수당을 이용하고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교양관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인의 교내 출입을 방지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명수당을 기준으로 접근성이 더 좋은 위치에 쓰레기통을 비치할 필요가 있다. 이윤형(자연·전자물리 24) 씨는 "평소에 명수당에서 배달음식을 시켜먹은 뒤에 쓰레기를 버리러 교양관까지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게 불편했다"며 "명수당 입구 쪽에라도 쓰레기통을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앞서 언급한 설문조사에서도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명수당 근처 쓰레기통 비치'를 요구한 응답자의 비율이 14.5%에 달했다.

앞선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무려 34.5%의 학생들이 원하고 있는 해결방법은 '외부인 주차료 증액'이었다. 타 학교에 비하면 우리학교의 주차료는 매우 저렴한 편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등록 차량의 경우 주차료를 받지 않으며 일반 방문차량에 대해서는 최초 30분은 무료로 초과 10분당 500원으로 1일 최대 2만원의 주차료를 받고 있다.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는 최초 30분에 2,500원을 받으며 이후에는 초과 10분당 700원을 가산하고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는 최초 30분은 2,000원을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는 천원 인상된 요금을 받으며 입차 후 2시간이 지나면 10분당 천원의 할증을 붙이는 방식으로 요금을 징수하고 있다. 우리학교에서도 외부인이 특히 많이 오는 계절 혹은 주말에만 주차료를 더 높게 받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다.

나아가 학생들의 안전과 캠퍼스 질서 유지를 위해 경비 인력을 지금보다 더 증원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총괄지원팀에 따르면 최근 급하게 경비 인력과 청소 인력을 증원 중이지만 여전히 역부족인 실정이다. 한양대학교 에리카캠퍼스의 경우 특히 외부인 출입이 많은 주말과 휴일에 캠퍼스 경비를 강화해 규정 위반 시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나아가 총학 차원에서 자치대를 운영하고 근처 지구대 및 경찰서와 합동으로 순찰을 진행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학교 역시 이와 같이 지금 마련된 경비 인력에서 나아가 학생자원봉사단 및 총학 자치대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외부 방문객들이 우리학교 캠퍼스 이용 수칙을 제대로 알고 잘 지킬 수 있도록 매뉴얼을 구체화하고 이를 잘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29.1%가 '외부인 관련 매뉴얼 세부화 및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교내 방문객들에게 캠퍼스 이용 수칙 안내문 배포'가 필요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7%였다. 지금까지 명수당을 중심으로 이용 수칙을 적은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학교로 들어오는 입장객들에게 아예 개별 안내문을 나눠줌으로써 해당 이용 수칙에 대해 더 집중하고 경각심을 갖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 김미성(C&T·투월 24) 씨는 "전체 공지 같은 느낌의 현수막보다는 개별 공지식의 안내문을 배포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캠퍼스는 엄연한 교육 시설이란 점에서 외부인의 방문이 학생을 비롯한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된다면 이는 분명 심각한 문제다. 글캠의 자연경관과 명수당이 이미 자연 명소 입소문을 탄 이상 학교 차원에서 관련 문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보완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통폐합 및 신설 학과 처우 문제,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할 때

지난 2022년부터 우리학교는 유사 학과 통폐합을 추진해왔다. 이에 학교 측은 유사 학과의 통폐합 정원으로 여러 학과를 신설했다. 다만 강의 폐강 및 교강사 부족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권들이 보장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등록금 축소 및 졸업학점 축소 등 폐과된 학과 소속 학생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

고 있어 모든 피해가 고스란히 학생들에게도 전가되고 있다. 신설된 학과들 역시 수강 신청 당시 교강사 미배정 및 비체계적 학사 운영 등 많은 문제들로 인해 학생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통폐합 및 신설 학과의 현안△학과 구조 조정 배경 및 현황△이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통폐합 및 신설 학과의 현안

우리학교는 지난 2022년부터 통변역대학 및 국제지역대학 소속 학과 중 일부를 폐과하고 글로벌자유전공학부 등을 신설하는 등 학과 구조 조정을 시행해왔다. 2022년 당시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통폐합 당시 △글캠 총학△국제지역대학 학생회△통변역대학 학생회와 총장 및 학생처장 간의 면담에서 학교 측은 폐과 대상 학과들에게 여러 방안을 담은 수업권 보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수강 신청 당시 △과목별 제한 인원이 11명에서 1명으로 감소△기존 교강사 이탈△전공교과목이 한 과목당 기존 6개 개설에서 3~4개로 축소 개설되는 등 다방면에서 통폐합 이전보다 적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통폐합 대상 학과 사무실에선 다른 학과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을 부탁해 수강 취소 기간에 취소하게끔 하는 등 폐강 방어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강의가 폐강됐다. 심지어 수강 신청 변경 기간이 돼서야 교강사가 배정된 사례도 존재했다. 이에 통폐합 대상 학과의 재학생들은 △등록금 축소△수업권 보장△전공 필수 교과목 축소△졸업학점 축소 등의 요구안을 학교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정이다.

신설 학과에서도 비체계적인 학과 운영과 교강사 배정 문제로 학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학기 수강 신청 당시 투어리즘&웰니스 학부(이하 투웰) 소속 학생들은 수강신청 변경기간까지 담당 교강사가 배정되지 않아 학업 계획에 차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학기에 비해 축소 개설된 전공 강의에 혼란을 빚었다. 특히 일부 신설 학과는 기존 학과와의 커리큘럼 차별성이 부족하던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디지털콘텐츠학부(이하 디콘)의 커리큘럼이 기존의 융합인재학부(이하 융인)의 세부 모듈과 매우 유사해 융인 소속 교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디콘 신설 당시 융인의 문화산업콘텐츠 모듈과 유사하다는 의견이 많이 존재했고 이에 융인 소속 교수 측에선 학점교류가 가능하도록 허용한 바 있다. 또한 융인의 해당 모듈 담당 교수가 디콘의 학부장을 맡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는 일부 신설 학과들이 뚜렷한 방향성을 설정하지 못한 채 신설됐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학과 구조 조정 배경 및 현황

우리학교가 학과 구조 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데엔 여러 이유가 있다. 과거 외대학보 1080호 내용에 따르면 우리학교 기획조정처 관계자가 “이 같은 변화는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등의 여파로 대학교 구조 개혁이 필수적인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른 신설학과 설치를 위해선 입학정원 및 전공교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입학정원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는 한정된 수도권 대학교의 총 입학정원을 학교가 임의로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거해 수도권 지역 인구 과밀 현상을 막기 위한 입학정원 증원 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발표한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에 따르면 최근 3개년 평균 결손 인원 범위 내에서 첨단분야 학과 신설에 한해 입학정원 증원이 가능하다. 이에 우리학교는 기존 학과의 입학정원 감축 및 유사 학과 폐과존치를 통해 신설학과의 입학정원을 확보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이 충분한 논의 없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 및 교수진의 불만을 초래했다. 통변역대학 소속 학생 A 씨는 “지난해 소속 학과 통폐합이 논의되고 있을 당시 통변역대학 소속 학생회가 단합해 총장님과의 면담을 잡았다”며 “그러나 면담 며칠 전 학교 홈페이지에 임시 모집 요강 관련 공지가 새로 올라왔는데 그 공지에 통변역대학이 제외돼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는 학교 측의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우리학교 박상원 교무처장은 “학교에서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했기에 모집요강에서 제외하게 됐다”고 밝혔다.

통변역대학 및 국제지역대학 몇 개 학과의 통폐합 이후 우리학교엔 다수의 학과가 신설됐다. 서울캠퍼스(이하 설캠)엔 첨단기술을 다루는 학과인 Language & AI 융합전공과 Social Science & AI 융합전공

을 설립하고 글로벌캠퍼스엔 총 2개의 단과대학(△디콘△투웰)과 4개의 신설학과(△기후변화융합전공△반도체전자공학부△AI데이터융합학부△Finance & AI 융합학부)를 설립했다.

◆이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

외대학보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통폐합 및 신설학과 처우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따르면 통폐합 시점 이후로 불편함을 겪은 통폐합 학과 소속 학생들은 95.7%에 달했다. 이들이 겪은 불편함엔 △수업권 미보장(72.7%)△교강사 부족(13.6%)△학과 생활 불가로 인한 학교에 대한 흥미 저하(4.5%)△기타(9.2%) 등이라 답했다. 현재 학교 측에서 통폐합 학과들에 대한 처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부정 응답 비율이 100%에 달했다. 우리학교 재학생 B 씨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입학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소속 학과가 폐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후배들이 들어오지 않기도 하고 학과 학생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가 없어 학교 생활에 대한 흥미가 저하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5월 통변역대학 측에선 구조조정 대상 학과들을 대상으로 공포한 보상안 관련 규정에 대해 규정 내의 보상안이 학생들의 학교생활 개선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통변역대학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해 이번 학기에 학교 측에 추가 발의안을 피력한 바 있다. 그러나 학교 측에선 본 발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우리학교 박상원 교무처장은 “폐과와 등록금은 아무런 상관 관계가 없는데 수업권 보장과 무관한 문제를 들고 왔다”며 “학생들이 입학할 때의 조건대로 강제로 교육 및 수업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고 그에 따라 등록금과 졸업학점은 연계되고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예를 들어 폐강 기준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폐강하지 않는 것은 하나의 수업에 비용이 더 많이 드는데 등록금을 축소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며 “즉 수업권과 등록금 및 졸업학점은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반면 신설학과 소속 학생들 중 불편함을 겪은 학생들은 93.8%에 달했다. 이들이 겪은 불편함엔 △비체계적인 학과 운영 방식(62.5%)△수강 신청 당시 교강사 미배정(18.8%)△기타(18.7%) 등이 있었다. 익명의 투웰 소속 C 씨는 “통변역대학에 버금가는 높은 등록금을 내면서 전공 수업은 하나밖에 열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작 투어리즘 관련 과목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며 “전공 교수님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당 교수님께 상담을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식이 많이 올라오는 타 학과 홈페이지에 비해 우리 학과 홈페이지는 텅텅 비어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투웰 소속 D 씨는 “기존 커리큘럼은 트랙 하나만 선택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학기부터 원하는 전공교과목을 선택해서 듣는 것으로 변경됐다”며 “졸업 요건도 아직도 미정인 데다 다른 신설 학과에 비해 학과 관련 활동에 대한 지원을 전혀 해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실제로 외대학보가 투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및 외국어 강의 필수 수강에 관한 내용만 있었을 뿐 졸업 시험과 졸업 논문 등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박상원 투웰 임시 학부장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현재 진행중이다”며 “투어리즘과 웰니스 두 가지 분야에 대해 필요한 교육 등을 이번 학기에 로드맵을 만들고 있고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또한 “졸업 요건의 경우엔 학교에서 마련하는 학칙으로 마련돼 있는 기본 졸업요건으로 한다”며 “학과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이라 학과 교수진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당장 1학년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련 학과를 이종전공으로 하던 학생들 또한 피해를 받고 있다. AI 융합전공 중 Software & AI를 세부트랙으로 이수하고 있는 D 씨는 “지난 학기부터 Software & AI 세부트랙을 이수 중인데 듣고 싶은 과목이 열리지 않아 이번 학기 수강신청을 기다렸지만 이번에도 열리지 않았다”며 “AI데이터융합전공이 신설되면서 한 학기에 열리는 교과목이 줄어들어 현재 이중전공 변경을 고려 중이다”고 전했다. 또한 AI 융합대학이 신설되면서 기존 AI융합전공 중 Language & AI 세부트랙이 폐지되고 하나의 전공으로 신설됐다. 기존에 Language & AI를 세부트랙으로 이수하려던 학생들은 이중 변경

기간 직전에 갑작스럽게 이 소식을 통보받았다. 현재우(중국·중외통23) 씨는 “원래 Language & AI를 세부트랙으로 이수하려고 했는데 이중 변경 기간 직전에 이 같은 소식을 통보받게 돼 당황스러웠다”며 “Language & AI 융합학부를 이수하려면 이중 변경을 해야 하는데 신청 자격이 24학번 대상이라 이수를 못 하게 돼서 난처하다”고 전했다. 이에 학사종합지원센터 측은 “Language & AI 트랙은 설캠 Language & AI 융합학부 및 ELLT학과에서 이수하도록 처리되는 등 AI융합전공의 세부트랙의 교과목 이수의 처리를 진행했다”며 “교과목이 축소돼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말엔 상당 부분 동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AI융합전공 폐지는 AI데이터융합전공의 신설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현재 학교 측의 부족한 지원으로 인해 학생들은 수업권 보장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학교와 비슷한 사안을 겪은 다른 대학교의 사례가 주목받는다. 지난 2021년 경희대학교(이하 경희대)에서 신설학과 관련 소통 부족이 논란이 됐다. 경희대 설립 경영대학에 빅데이터응용학과가 신설된다는 소식에 일부 학생들은 해당 학과의 성격이 경희대 설캠의 순수학문 지향성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또한 해당 학과가 국제캠퍼스의 산업경영공학과나 소프트웨어융합학과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러나 학생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빅데이터응용학과와 설립을 강행했다. 이후 학교 측은 학생들과의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해 학과 커리큘럼을 재정비해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에 대해 통폐합된 학과 응답자들은 △등록금 및 졸업학점 축소(81.8%)△수업권 보장과 관련한 학교 측의 제도 개선(18.2%)의 비율로 답했다. 신설 학과 응답자들은 △수업권 보장과 관련한 학교 측의 제도 개선(37.5%)△학과 지원 확대(25%)△커리큘럼 강화(25%)△대체 교강사 미리 확보(12.5%)의 비율로 답했다. 등록금 및 졸업학점 축소와 관련한 질의에 우리학교 박상원 교무처장은 “현재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지 않는 상태다”고 전했다. 또한 신설 학과에 대한 처우와 관련한 질의엔 “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 확보△대의활동△우수한 교수진 확보 등이 있다”며 “신설학과를 우선적으로 교수진을 뽑고 있지만 교수가 오지 않는 건 해당 교수가 포기하거나 분야가 맞지 않는 것이다”고 밝혔다. 추가로 “우수한 교수진 확보는 핵심 사항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공간 확보의 경우엔 어문학과와 교양관에서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며 “그 공간 안에 들어오는 기자재 등이 필요할 텐데 예산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PC 영상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확보해주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학교의 통폐합 및 신설학과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선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선 학생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청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보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폐합으로 인해 피해를 본 학과의 학생들에게는 수업권 보장을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우리학교 박상원 교무처장은 “수업권은 어떤 상황이 돼도 보장하겠다”며 “그에 대한 절차와 방식을 만드는 것이 대원칙이며 당분간은 학생이 많이 있으니 현 체제로 유지할 것이다”고 밝혔다. 기존 학과와 신설학과 간의 차별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이에 따른 커리큘럼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 또한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신설학과 설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존 학과 학생의 수업권 침해 우려 역시 학교 측이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학생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는 구조 속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태국에서 얻은 기다림의 미학

‘왔다-가!’ 난 이번 학기 동안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프로그램을 통해 태국 방콕(Bangkok)에 위치한 카셋사트대학교(Kaetsart University)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보내고 있다. 태국어 전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 교환학기를 보내기로 한 이유는 정규 학점을 인정받으며 공부하는 동시에 △문화 교류△미식△휴양까지 모두 누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상대평가가 보편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태국의 대학교는 대부분 절대평가 제도를 따르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여유롭게 서로를 도와주는 분위기에서 공부하며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태국은 △말레이시아(Malaysia)△미얀마(Myanmar)△베트남(Vietnam)△캄보디아(Cambodia)와 국경을 접하고 있고 △고원△산악지△해안가 등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같은 나라 안에서 다양한 지역별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방콕에서 학기를 보내는 동안 틈틈이 △아유타야(Ayutthaya)△치앙마이(Chiang-Mai)△카오야이(Khao-yai)△칸차나부리(Kanchanaburi)△페etchaburi)△후아힌(Hua-Hin)을 여행하며 소중한 추억도 쌓았다.

물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했던 것은 아니다. 방콕의 보수적인 부동산 시장 때문에 거주지를 구하느라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내가 태국에 머무는 동안 바트(Baht) 원 환율이 급상승해 계획보다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기도 했다. 교통체증과 날씨 변화가 심해 계획에 차질이 생기거나 비효율적인 일처리로 답답함을 느낀 적도 정말 많았고 소매치기를 당해 아끼던 지갑을 잃어버린 후 며칠 동안 속상해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태국 방콕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은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다. 기대했던 것들을 모두 누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태국에서의 경험이 나를 한층 더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태국에선 모든 것이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우리나라의 빠르고 효율적인 일처리에 익숙했던 내게 태국의 느리고 비효율적인 일처리는 너무나도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그곳에 녹아들니 내 마음도 한층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내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스릴 기회가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건 모든 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기회였다. 자기고 싶은 것이 정말 많았던 내게 다른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이루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 것이 태국에서 얻은 자신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

다 발 벗고 나서서 도와준 소중한 친구들과 가족처럼 가까워진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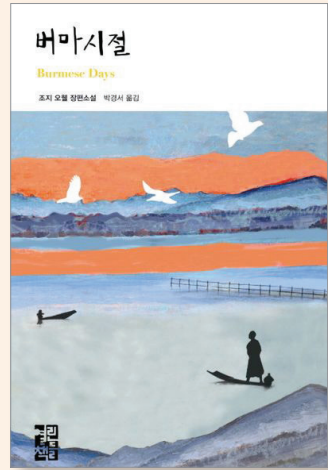
이제 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무리하고 떠날 시간이다. 그러나 태국에서의 모든 경험은 내 안에 남아 앞으로의 여정을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 믿는다. 어디서든 태국에서 배운 기다림의 미학과 소중한 추억을 기억하며 스스로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이기쁨 (사회 · 정의 22)

영국

<버마시절>

- 세상의 아름다움과 구조의 억압, 그 괴리 속 개인의 고뇌 -



조지 오헬의 버마 시절은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제국주의의 부조리와 인간 본성의 복잡한 이중성을 탐구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오헬이 식민지 경찰로 근무했던 버마(현 미얀마)를 배경으로 제국주의의 어두운 이면과 그 속에서 갈등하는 개인의 모습을 생생히 그려냈다. 일전에 읽었던 '1984'와 '동물농장'에서도 소설 속 강렬하게 전달되는 오헬의 정치적 통찰과 제도 비판에 깊게 감명 받았었는데 이번 '버마 시절' 역시 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제국주의의 잔혹함과 인간의 고뇌를 강렬하게 조명했다는 점에서 옛 독서 경험의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소설은 영국인 주인공 존 플로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는 버마에서 제국주의 경찰로 근무하며 권력을 행사하지만 그 과정에서 버마 사람들의 고통과 억압을 목격하며 점차 제국주의의 부조리함을 깨닫는다. 플로리는 버마의 자연과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면서도 제국주의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차별과 불평등 속에서 갈등한다. 그는 새로운 사랑을 통해 외로움을 달래고자 하지만 자신의 과거와 주변 환경으로 인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만다. 결국 플로리는 자신을 둘러싼 억압적 환경과 내면의 고통을 극복하지 못한 채 끝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한다.

여태 읽었던 오헬의 다른 소설들과 마찬가지로 버마 시절은 오헬 특유의 직설적이며 생생한 묘사에 기반한 문제로 인해 나를 그 시대의 모습으로 몰입시킨다. 그렇기에 버마 시절을 읽으며 느꼈던 가장 큰 감정은 깊은 공감과 동시에 서늘한 고독감이었다. 플로리가 가진 버마의 풍경과 문화에 대한 애정과 제국주의의 억압적 구조 사이의 괴리로 발생하는 소외와 혼란은 내게 한 개인의 인간적 고뇌가 얼마나 보편적일 수 있는지를 일깨워줬다. 그가 느꼈을 절망과 자괴감은 단순히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마주하는 삶의 아이러니 같았다.

특히 플로리의 죽음은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작중 플로리는 그의 사랑이자 그가 살아가는 제국주의의 상징인 엘라자베스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 했으나 그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된다. 그녀에게 모욕적인 취급을 받는 상황에서 그가 느꼈을 허망함과 고통은 나에게도 가슴 아프게 다가왔다. 동시에 오헬은 이를 통해 제국주의가 단순히 피지배국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국의 개인조차 고립시키고 파멸로 몰아간다는 사실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나 또한 내 삶 속의 부조리와 모순에 대해 성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의 사회상에 비하면 우리들의 사회는 많은 발전을 거듭해왔다. 그럼에도 우리가 속한 사회 구조와 제도는 때로 우리를 소외시키고 억압한다. 그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신념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플로리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깨달았다. 또한 작품 속에서 묘사된 버마의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오헬의 생생한 묘사를 통해 현실처럼 다가왔고 마치 무대 위의 연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느끼게 했다.

'버마 시절'은 단순히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은 권력과 억압이 나 인간의 도덕적 딜레마와 같은 주제를 다루며 독자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제국주의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서 개인은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오헬은 이 작품을 통해 권력의 본질과 그것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탐구한다. 그는 단순히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과 사회 구조의 모순을 드러낸다. 또한 그의 작품은 당시 제국주의의 부조리함을 넘어 현재의 권력 구조와 억압적 제도의 문제를 성찰하도록 만든다.

'버마 시절'은 나에게 단순한 소설을 넘어선 깊은 통찰의 경험을 선사했다. 오헬의 생생한 묘사와 정교한 서사는 나를 플로리의 고뇌와 제국주의의 부조리 속으로 끌어들이고 이로 인해 나는 권력과 억압의 복잡한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었다. 그의 작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성찰과 행동의 중요성을 일깨운다.

이병찬 기자 08byeongchan@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요강[MBA]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주간·Evening·주말)
2025학년도 전기
학생모집 안내

■ 입학문의: 경영대학원 주간, 주말 사무팀 02)2173-2399
Evening 사무팀 02)2173-2408
■ 교통편: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1. 전형 일정

■ 특별전형1

구분	일시 / 기간	장소	비고
입학지원서 교부 (인터넷 작성)	2024.12.9(월) 09:00 ~ 2025.1.3(금) 22:00		교부기간 중에는 인터넷으로 마감일 24시간 뒤실 가요.
입학지원서 및 서류 제출	2024.12.9(월) 09:00 ~ 2025.1.3(금)	경영대학원 사무팀 (사이버관 502호)	우편 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됩니다. 면접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면접 전형	2025.1.11(토) 10:00	사이버관	
합격자 발표	2025.1.17(금) 14:00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biz.hufs.ac.kr	
합격자 등록	2025.1.20(월)~1.24(금)	우리은행 전국 각 지점	

2. 모집 전공 및 인원

모집 과정	모집학과	전공	모집인원
경영학석사 (MBA)	경영학과 (Full-time MBA, 주간 수업)	재무/회계	○○○명
		인사/조직	
		국제경영	
	경영관리학과 (Evening MBA, 저녁 수업)	경영정보	
		마케팅	
	경영금융학과 (온·오프라인 병행수업)	경영 금융	
	글로벌경영학과 (주말 수업)	글로벌경영	

3. 지원 자격

-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해당학기 졸업예정자.
- 나. 외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예정자.
- 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또는 KLPT3)급 이상 소지자.
단, 한국어능력시험 3급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반드시 취득해야 함.
- 라.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예정자.
- 마.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
※ 대학의 전공 학과와 다른 전공 분야도 지원할 수 있음.

4. 전형 방법: 서류 심사 및 면접(학부 성적: 20%, 면접 및 서류 평가: 80%)

5. 입학 장학금

외대동문(사이버외대 포함), 군무원, 군인공제회 직원, 공무원, 직급학교 교직원에게 입학 시 첫 학기 1회에 한하여 등록금(입학금 제외)의 50% 장학금 지급(중복지급 불가)
군인은 4학기 동안 매학기 등록금의 30% 장학금 지급(중복지급 불가)하며 매학기 복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장학금 지급 기준이 모호할 경우 경영대학원 운영위원회 심의를 따른다.

6. 접수방법 및 문의

경영대학원 홈페이지 참조 (biz.hufs.ac.kr : 경영대학원 - 입학안내)
연락처 이메일: hufsmba@hufs.ac.kr
전화번호: 주간과정(02-2173-2399) 야간과정(02-2173-2408)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사람 살리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그 이면을 살펴보다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관리 체계 측면에서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엔 각종 문제점과 우려 사항이 혼재하고 있다. 보험금 납부의 형평성 문제와 매해 높은 적자를 기록하는 재정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지나친 강제성에 기반한 의무적 납부로 인해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각종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해당 제도는 향후 지속가능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본 기사를 통해 △건강보험의 정의와 현황△건강보험의 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건강보험의 정의와 현황

건강보험제도는 개인에 대한 의료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고액의 진료비가 한 번에 발생해 가계의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들이 평소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관리 및 운영한다. 이후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전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관리 운영 체계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 의해 이뤄진다. 건강보험료 납입과 지출의 재정 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하고 의료기관 관리 및 진료비 심사는 심평원에서 맡고 있다. 그리고 심평원은 요양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요양 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해 공단이 지급할 비용을 확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해왔다. 1977년 500명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시 근로자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하면서 출범한 건강보험제도는 1989년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제도로 확립됐다. 이러한 건강보험제도는 지난 2000년 이후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이 통합되면서 단일보험 체계로 구축됐다. 일련의 발전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관리 체계 측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건강보험의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공무원△교직원△피부양자가 해당된다. 지역가입자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가 포함된다. 이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한다. 피부양자의 대상인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직장가입자의 배우자△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등이 포함된다.

보험금 납부에 있어서 직장가입자는 급여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건강보험료를 근로자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재산적 가치 즉 △기타 사업소득△배당소득△세대원 수△이자소득△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인 이 100%의 보험료를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형평성에 대해 서로 다른 불만을 표출한다. 우선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들의 보험료는 원천징수로 이뤄져 소득을 감출 수 없지만 지역가입자들은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제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직장가입자들이 그들이 받는 급여기준만을 적용하고 있어 실제 직장가입자 개인의 재산적 가치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역가입자 본인들이 납부하는 보험료가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하다는 불만을 표출한다. 이처럼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에 대해 형평성에 관한 불만이 팽배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그에 따른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총지출금액은 907,837억 원이고 지난 2022년도의 총지출금액은 887,773억 원이다. 이처럼 현재 건강보험의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더 많은 건강보험 지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재정 확충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까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2002년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했고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재정 건전화 노력 끝에 2003년부터 한시적으로 재정 불안정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 바 있다. 그러나 2005년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 급여비 지출이 증가하고 담뱃값 동결 등으로 인해 수입원이 감소하자 건강보험의 재정은 다시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경기 둔화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한 반면 신규 보장성 강화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재정 불안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뿐만 아니라 초고령화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인구 고령화에 따른 급격한 의료 수요 증가를 감안하면 건강 보험의 재정 불균형은 더욱 만연해질 것이다.



더불어 강제성을 지닌 보험료 징수에 있어서도 각종 불만이 표출된다. 건강보험료는 조세는 아니지만 의무적인 납부가 이뤄진다. 강제 적용은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중 하나다.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의 대상이 된다. 만약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율에 맡길 경우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려워진다. 그런데 최근 들어 보험금 강제징수의 강도가 지나치게 심해지고 있다.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법정 기일 내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 기준에 따라 징수 절차가 진행된다. 연체가 될 경우에는 통장 압류가 이뤄지는데 통장 압류는 개인의 경제생활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여기에는 △가난△사고△실직△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험료를 연체하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일괄 적용 대상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강제징수는 지난 2011년 4대 보험 징수 통합이 이루어지며 더 혹독해졌다. 강제징수 실적이 곧 공단 경영평가와 직결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건강보험공단 내에 간부들은 그들의 연봉과 승진을 위해 건강보험료 미납부자를 적극적으로 찾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야 할 방향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일까? 우선 전산 통합을 통한 보험료 부과 체계의 형평성 제고가 필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국세청△근로복지공단△금융감독원△지방자치단체 세무과 간 전산 통합을 시행해 단일 통합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소득△금융거래 이력△세금△자산 등에 대한 전산을 통합하고 보험금 청구 이력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은 이전부터 국세청과의 전산 통합을 추진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 방안을 내놓으며 2022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2단계로 구성해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인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재정적 부담이 큰 현실적인 난관도 존재한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통합 전산을 허용한다면 보험료율 및 수가 산정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적절한 대책을 하루빨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재정적 측면에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선 우선 건강보험 재원 확충을 위해 보험료 인상과 정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가 조정△약제비 절감△의약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출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하자는 방안 역시 제시된 바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다양하다.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는 청년의사에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통해 정부 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 KDI 윤희숙 연구위원(이하 윤 전 위원)은 청년의사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지원에 대한 논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간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정부지원금 규모와 방식을 미세 조정하는 것은 그다지 우선순위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건강보험 역시 여타의 모든 재정문제와 마찬가지로 수입과 지출 간의 균형이 있어야 재정이 안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가입자평의회’를 신설해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공단의 지역본부 중심으로 가입자평의회를 구성하고 여기에는 일반시민 및 지역 주민 대표가 참여할 수 있다. △강제 납부△건강보험 및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한 정책 제안△예산 검토에 대한 개선 사항 의견 등 속의 민주주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 운영 도입과 시도를 통해 앞서 국민건강보험의 이면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예술·체육요원, 누구를 위한 병역특례인가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린 후 북중미 월드컵 예선이나 프리미어2 등 다양한 국제대회가 개최되면서 많은 스포츠 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국가대표 스포츠 경기가 열릴 때면 대표팀 선수단 구성이나 병역 특례의 정당성에 대한 거의 매번 등장하는 논의 중 하나이다. 남자 선수가 특정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낼 경우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술·체육 요원 병역특례△문제점△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아보자.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우리나라 국적의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남성들이 각자의 사정에 따라 군에 입대하거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등 병역의무를 이행한다. 그런데 보충역 중 하나인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형태로 병역 대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술·체육요원이란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말한다. 지난 1973년 3월 세계적 선수를 육성하고 문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도입됐으며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한 자에게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될 경우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34개월간 관련 분야 종사△544시간의 공익복무를 하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군 입대가 경력을 이어나가는 데 큰 걸림돌이 되므로 많은 예체능인들이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고자 한다. 병역 문제 때문에 해외 진출이나 계약 조건 등에서 발목을 잡힐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 프로축구 리그 분데스리가(Bundesliga) SC 프라이부르크(SC Freiburg)에서 뛰고 있던 축구선수 권창훈은 병역 문제 해결을 위해 독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으며 스페인에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한 이강인에겐 스페인 축구연맹에서 귀화를 제안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35개 대회에서 2위 이내로 입상한 사람이 편입될 수 있으며 체육요원은 올림픽대회 3위 이상이나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가 그 대상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414명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특례 제도의 문제점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편입된 예술·체육요원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 하지만 일반 병사와는 복무 형태가 완전히 다르고 강도도 약하다고 여겨져 따가운 시선을 받기도 한다. 특히 최근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공인들의 군 복무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되면서 이 제도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도 많다. 기초군사훈련을 수료한 후 2년 6개월간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가기만 하면 되기에 병역면제와 동의어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비판에 2014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특기를 이용한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19년 국방부가 성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4.4%가 운동선수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국정모니터링시스템에 따르면 19세 남자 인구는 2014년 약 351,000명에서 2023년 약 226,800명으로 대폭 줄었다. 또 내년에는 처음으로 군 병력이 40만 명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대체복무제도 축소나 복무기간 연장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병역판정검사도 판정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가령 신체질량 지수(BMI)가 35 이상일 경우 작년까지는 신체등급 4급 사회복무요원 임명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40 이상부터 4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예술·체육요원 제도 또한 축소 압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는 지적도 있다.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관리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한 대회들이 인지도가 떨어지거나 한국인 참가자가 많아 국위선양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체육요원의 경우도 종목 간 인지도 차이가 커 비인기 종목에서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같은 이유로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대회 기준도 변화가 잦다. 월드컵 축구의 경우 2002년 한국-일본 월드컵 흥행에 따라 대회 기간 중 추가됐다가 2008년에 빠졌다.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또한 2006년 대회 창설과 함께 추가됐다가 2년도 안 돼 월드컵 축구와 함께 제외됐다. 이에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여론에 따라 자주 바뀐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병역 특례 논의가 등장한 후 더 증폭됐다. 방탄소년단이 유명 음원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수상하자 이들에게도 병역특례를 줘야 한다는 여론이 생겼다. 방탄소년단 같은 대중예술인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국위선양에 기여했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일각에선 나라를 대표해서 나간 것도 아닌데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문제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진지하게 논의됐다. 지난 2021년 11월 25일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김진표 의원은 "방탄소년단 정도로 국위를 선양한 사람은 당연히 예술·체육요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으며 성일종 위원도 "유엔(UN)에서 연설까지 했던 사람들이 이 혜택으로부터 배제된 것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힘을 보탰다. 반면 감병기 의원은 "그러면 군대에 가는 사람들은 아무 능력이 없고 국위선양을 하지 못해서 나라라도 지키라고 가는 건 아니냐"고 반박했다. 국위선양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이처럼 특정인이 병역특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축구나 야구 등 팀 단위로 출전하는 종목의 경우 선수마다 기여도가 다르다는 문제도 있다. 경우에 따라선 아예 경기에 출전하지 않고서도 팀이 승리하면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022년 한겨울 아시안게임에선 야구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해 선수단 전원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는데 부상을 이유로 한 번도 출전하지 않은 두산 베어스 소속 투수 박민도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병역이행의 공정성·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서 '후보 선수와 하더라도 팀의 일원으로서 함께 땀을 흘리며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또한 공익복무시간을 조작하는 문제도 있다.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면 34개월 내에 청소년 및 사회적 취약 계층 등을 대상으로 544시간의 공익복무시간을 채워야 하는데 이를 조작하거나 부풀리는 것이다. 축구선수 장현수는 지난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었지만 봉사실적을 조작한 것이 적발됐다. 같은 날 찍은 사진을 여러 번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복무시간을 부풀린 것이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벌금 3,000만 원을 부과하고 국가대표 자격을 영구 박탈했다. 한편 SBS는 지난 10월 16일 프로야구 A 선수와 쇼트트랙 B 선수 등 봉사실적이 현저히 떨어지는 병역특례자들에 대해 보도했다. 한 분기에 24시간을 채워야 하지만 5시간에서 적게는 아예 실적이 없는 선수들도 있었던 것이다. 이에 6일 뒤인 2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은 관리 인력을 늘리겠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은 SBS에 "최소한의 봉사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실히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다"며 "병역특례에 대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비판했다.

◆나아가야 할 방향

앞서 언급한 문제들 이외에도 여자 선수와의 형평성 문제나 병역특례 후 국적 이탈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논란이 되자 이기식 병무청장은 지난 5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국민 인식△병력 지원 상황△시대 환경 등의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최적 방안의 기준은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라며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우리나라의 문화 경쟁력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수한 예체능 자원들이 군 입대를 할 경우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성장에 실제 및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퇴 후에 병역을 이행할 수 있게 하거나 국군체육부대처럼 예술인들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국군예술부대도 만들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 특히 2020 도쿄 올림픽에서 국군체육부대 상무 육상단 소속 우상혁 상병이 4위를 기록하고 같은 해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우리나라 육상 종목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하는 등 성과를 보여준 것을 근거로 국군예술부대의 실효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다.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소속 국가 중에서 국위 선양 등을 근거로 병역특례를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OECD 소속이 아닌 국가 중에선 이란이 운동선수들의 성과에 대해 병역특례를 주는 제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18개월에서 24개월간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하도록 하는 이란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은 물론 세계선수권대회 등도 병역특례 대상이다. 마수드 솔타니파르(Masoud Soltanifar) 전 이란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병역특례를 아시안게임에도 확대 적용하자며 선수들을 독려하기도 했다. 대만 또한 대만 헌법 제20조에 따라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동선수들에게 병역특례를 제공한다. 병역특례를 받은 선수는 4개월의 병역의무를 12일로 줄일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2005년 이후 출생자부터 복무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기에 더욱 큰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 이집트 또한 학력 등에 따라 3년까지 복무해야 한다. 특례 제도는 따로 없으나 이브라힘 마흐라브(Mbrahim Mahlab) 전 총리가 축구선수 모하메드 살라(Mohamed Salah)에게 직접 나서서 병역 특례를 주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헌법소원도 몇 차례 이루어졌을 정도로 최근 우리 사회의 쟁점 중 하나로 급부상했다. 헌법재판소는 세 차례의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한 결정을 내렸지만 판결문에서 모병제 전환이나 여성 징병제를 언급하기도 하는 등 변화를 암시하기도 했다. 특히 공인 남성의 병역 미이행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날카로워졌다.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면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싸늘한 눈초리를 피해갈 수 없게 되었다. 국가대표를 영웅시하는 풍조는 사라진 지 오래며 그 자리에는 공정을 중요시하는 추세가 대신 자리잡았다.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는 스포츠 국제대회 시청률이 이를 방증한다. 즉 아무리 국가에 기여한 인물일지라도 합리적 이유 없이 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휴전 중인 국가로서 관련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백승준 기자 08seungjune@hufs.ac.kr

www.사사한줄토픽.com

정치 “사필귀정” vs “판결 존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한결 가벼워졌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는 “교사행위 당시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증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앞선 15일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을 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두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표가 받고 있는 5개 재판 중 하나라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오는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고 민주당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사회 지하철 동시 파업 예고

철도노조와 서울지하철노조가 각각 오는 5일과 6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서울지하철노조가 준법투쟁에 나서며 일부 노선의 열차가 지연 및 단축 운행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부족한 인력 충원과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이를 태업으로 규정했다. 강경남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본부장은 “철도 현장의 안전을 위해 근무 체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4조 2교대 전환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주노총이 정작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제 급한 불 끈 삼성, 이번엔 롯데가 ‘휘청’

삼성전자가 10조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고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다시 상승 국면으로 돌아선 가운데 이번엔 롯데그룹이 위기설에 휩싸였다. 그룹의 유동성 위기 루머가 퍼지면서 지난달 18일 장 시작과 동시에 롯데케미칼과 롯데쇼핑 등 핵심 계열사들의 주가가 폭락했다. 롯데케미칼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일진머티리얼 인수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만 4,700억이 넘는 적자를 냈고 롯데온도 누적 적자가 5,300억 원을 넘어서면서 구조조정에 들어간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그룹의 상징과도 같은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최고경영자 21명을 교체하면서 쇄신에 나섰다.

국제 반쪽짜리 추도식에 ‘외교 참사’ 비판

일본 정부 단독으로 치러진 사도 광산 추도식에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사도 광산 추도식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동원되었던 사도 광산을 일본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면서 약속한 행사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애도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참석이 예정된 일본 고위급 인사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이 과거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다는 것을 행사 이틀 전 알게 되면서 우리 정부가 불참을 통보한 것이다. 이쿠이나 정무관의 참배 사실을 보도한 교도통신은 지난달 25일 이를 부정하는 정정보도를 냈으며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내년부터 진정성 있는 추도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일본에 촉구하겠다”고 전했다.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강화, 그 배경과 전망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하 러우 전쟁) 파병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안보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파병은 러우 전쟁의 전황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및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군사적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더불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 강화는 우리나라를 비

롯한 주변국들의 안보 정책에도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련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북한 파병 결정의 배경과 이에 따른 국제 안보의 변화 전망에 대해 이상환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자.

이상환 우리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Q1.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결정한 주요 원인과 그 배경에는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북한은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로 인한 어려움을 탈피하고 핵무장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파병이란 러시아의 군사적 요구를 들어주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 및 군사기술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대미 외교에서 러시아를 외교적 자렛대 삼아 북미 협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Q2. 북한의 파병이 러우 전쟁의 전황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러시아는 병력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북한군의 가담이 쿠르스크(Kursk) 전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현재 북한군은 충분한 준비 없이 참전한 상황이기에 기대한 전과를 거두기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러우 전쟁이 이미 국제전이 된 가운데 자칫 확전을 유발할 우려가 있습니다.

Q3. 과거 북한의 유사한 군사적 행보가 당시 국제 안보 위기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최근 상황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이번과 같은 대규모 해외 파병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군의 첫 해외 파병은 1964년 베트남 전쟁 때 군수 물자와 함께 군 병력 수백 명을 북베트남에 파견한 바 있었습니다. 이어 1973년 4차 중동전쟁에선 이집트와 시리아 군대의 교육 훈련을 위해 군사고문단을 파견하고 전투기 조종사를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작은 규모로 아프리카 지역에 군사고문단을 파견하다가 2016년 시리아 내전 때 소규모의 북한 지상군이 파병됐습니다. 이러한 사례와 비교했을 때로 이번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은 12,000명으로 추산되는 규모와 최정에 특수부대를 파병했다는 측면에서 전례 없는 규모로 평가됩니다. 과거 북한의 파병이 대부분 냉전기 진영논리 속에서 이뤄지거나 규모 및 내용적 측면에서 관심을 끌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파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Q4.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국제 사회는 이에 대해 미국과 유럽연합(이하 EU)을 중심으로 우려 및 경고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파병은 유럽과 세계 평화 및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독단적인 적대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제연합(이하 유엔)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의 국방부 장관이 양국 간 방위조약 체결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내 갈등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문제와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Q4-1. 국제 사회가 북한의 파병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유엔 안보리에 의한 제재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한 반러 진영과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권교체기에 들어선 미국의 현 정치 상황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종전 협상 전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로의 미사일 발사를 허용한 것 외에 당분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국의 외교·안보 메시지에 외교와 관련한 사안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러 외교에선 영토 회복과 관련한 협상과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및 EU 가입 불허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입니다. 대북 외교에선 북한의 비핵화 및 경제제재 완화와 같은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Q5. 북한의 이번 파병이 관련 국가들과의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가속화된 미·EU 대 중·러의 신냉전 질서 흐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러시아와 유럽 내 접경국과의 관계 정립을 위해 미·러 및 EU·러 간 관계 제도화를 목적으로 하는 NATO 및 EU의 협상이 있을 것입니다. 한편 동아시아 내 한·미·일 대 북·중·러의 양분된 구도가 한·미·일 대 북·러 대 중 구도로 세분화될 것입니다. 구 냉전기 미·소 패권 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중국을 활용해 소련을 견제했듯 오늘날 신 냉전기 미·중 패권경쟁 구도에서 미국이 러시아를 활용해 중국을 견제하는 양상이 트럼프 행정부 2기 동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Q6. 북한의 파병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힘의 균형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북·러 밀착 구도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군사위성 지원△극초음속 미사일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방공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경우 남북 간 안보 균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요망됩니다. 먼저 사전에 북한이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미국을 통해 러시아의 자제를 촉구해야 합니다. 또한 중국을 외교적 자렛대로 활용해 북·러와 중국 간의 간극을 이용해야 합니다.

Q6-1. 북한의 파병이 장기적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안보 체계에 미칠 변화는 무엇인가요?

파병을 통해 북한이 핵무장을 고도화한다면 북·중·러의 핵 보유와 한·미·일의 핵 확장으로 삼각 협력 간 핵 균형이 이뤄질 것이 기정사실로 보입니다. 즉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이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동북아의 핵 지대화가 가시화될 것입니다.

Q7. 북한의 파병이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바와 같이 '대립적 두 국가론'의 맥락에서 통일 논의는 이제 실효성 없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분간 남북한 관계는 경직될 수밖에 없으나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등장과 함께 북미협상과 연계된 논의가 남북한 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는 통일에 대한 논의보다 평화적 공존 논의가 될 것이며 미국의

대동아시아 전략의 근간이 될 것입니다.

Q8.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이 우리나라의 안보 정책에 어떤 잠재적 영향을 끼칠지 궁금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러 간 군사기술 협력을 심화해 △군사위성 기술△극초음속 미사일 기술△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방공 시스템 구축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러시아가 북한으로 유출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 능력 향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핵무장 능력 보유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등 관련 조약의 개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Q8-1. 북한-러시아 군사 협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안보 정책과 외교 전략을 취할 수 있을까요?

결국 굳건한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 한·미·일 간 삼각 안보협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북·러-중 구도 혹은 북·중·러 구도는 사실상 한·미·일 구도의 대척점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러나 러우 전쟁이 마무리될 시 북·러 관계 또한 다시 이완될 가능성이 큼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새로운 동북아 정세를 맞이하며 우리나라는 신 강대국 관계를 모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과학기술△전략산업△핵 안보의 핵심 이익 협력은 제도화하고 그 외 사안에 대해선 중국과의 협력 자율성을 확보해 실용주의적 외교 전략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Q9. 북한의 파병 결정이 세계 경제에 미칠 주요 영향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북한의 파병으로 파생되는 북·러 군사동맹 강화는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과 함께 중국에 대한 통상 규제인 관세 장벽의 강화에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더불어 반도체 및 배터리 등의 전략산업과 △로봇△우주△AI(Artificial Intelligence) 등 제4차 산업혁명 기술 관련 협력 등에 있어 한·미·일·대만 및 EU 진영을 경제 안보 차원에서 결속시키는 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플랫폼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유지될지 미지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가치의 진영화'가 바이든 행정부의 '진영 내 네트워크화'로 발전되듯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은 연속성이 있으리라 전망됩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실용주의적 개입주의 외교 노선을 견지한다면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 및 방위비 분담금 요구 등으로 인해 우방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향후 △규범주의△세계화△탈냉전기의 다자주의의 틀은 약화되고 △신냉전기의 양자주의△탈세계화△협상주의의 틀이 강조되며 미국은 실리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실리 추구가 미국의 리더십 회복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향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주도로 탄생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안보 플랫폼 및 국제기구



학보라는 작은 문학 속, 나의 깨달음

“그저 잘하는 일이 아닌 잘하고 싶은 일을 만나보고 싶었다. 정말 거지같이 글을 못 쓰더라도 차라리 외대학보에 들어가기 전이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후회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하고 싶다. 앞으로 3학기 잘 해내보자” 지필고사부터 면접까지의 험난한 외대 학보 지원 절차 끝에 합격 문자를 보자마자 쓴 일기의 내용이다. 학장시절 때부터 잘하고 싶었던 것 중 하나가 ‘글쓰기’였다. 글쓰기는 단순히 단어의 배열이 아니라 나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진실의 표현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기에 내 진실을 이야기로 남겨 기억되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종이에서 끊임없이 피어나길 바라며 외대학보에 지원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동기만으로 외대학보 활동을 이어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2주에 한 번씩 마감을 위해 밤을 새야했고 마감이 끝나자마자 다음 기사를 위해 편집장님의 승인이 날 때까지 끊임없이 기획 제안서를 내야했다. 때로는 평화로운 학교를 미워하며 학내 큰 사건이 일어나길 바라는 위선적인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데도 타월한 기획을 내놓는 동기들을 보며 내 부족함이 학보의 집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평범한 학교 속에서도 특별함을 찾아내려 노력했고 무심히 스쳐 갈 법한 풍경과 사건들을 나만의 시선으로 담아냈다. 그때부터 과제처럼 느껴지기도 했던 기사 작성 및 취재 과정이 진정한 즐거움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외대학보 일이 단순히 학교에 대한 글을 쓰는 것을 넘어 학교 일상의 한 페이지를 찢어내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잊히지 않게 붙잡아두는 의미 있는 작업임을 깨닫게 됐다.

기사는 객관적이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그러나 내 글들에 객관을 담으면서도 동시에 주관의 흔적을 지울 수 없었다. FLYMPICS 어문체전 기사에서도 나 또한 직접 불편함을 겪었기에 단과대들의 입장이 뻥한 광계로 들렸고 FLEX 시험 기사 역시 내 편견으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풀어내게 됐다. 내 편견과 감정이 글에 스며드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순 없었지만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기자로서 중요한 임무임을 깨닫게 됐다. 그 과정에서 ‘객관성’이란 단순히 나의 주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통해 드러난 다양한 이야기를 보다 공정하게 엮어 내는 능력임을 배웠다. FLEX 시험과 FLYMPICS 어문체전에서 드러난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를 준비하며 노력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나 시스템 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글쓰기는 나와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노력의 연속임을 느꼈다. 이런 외대학보 활동은 단순히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넘어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드는 값진 경험이었다. 이제 내 언어로 사건을 구체화하고 재구성해 독자들에게 글을 건네는 이 일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 외대학보 일은 내게 무수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에게 대화를 제안하며 다양한 삶을 더 깊이 들여다볼 기회를 제공했다. 이러한 외대학보에서 얻은 가치를 나는 매 순간 되새기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건을 취재하고 다양한 시선을 담아내는 글을 써나가고 싶다.



최소연 기자

[책 ‘르 몽드’를 읽고] ‘르 몽드’로 보는 프랑스 사회와 언론의 발자취

최연수 연구자(이하 최 연구자)의 저서 ‘르 몽드(Le Monde)’는 프랑스의 명문 일간지가 간직한 깊은 역사적 뿌리와 이것이 오늘날 세계적인 언론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까지의 과정을 집대성한 책이다. 이 책은 단순히 신문의 역사나 단기적인 변천사에 대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프랑스 △문화△사회△정치에 미친 지속적이고 방대한 영향을 탐구한다.

‘르 몽드’는 1944년 창간 당시부터 프랑스와 세계에 중요한 신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했다. 특히 세계 2차 대전 이후 프랑스 사회의 재건과 민주적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정치적으로는 프랑스 내의 주요 사건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을 제공하면서 독자들에게 신뢰를 얻었다. 최 연구자는 창간의 순간부터 시작해 ‘르 몽드’가 어떻게 프랑스 언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는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적·정치적 사건들이 어떤 식으로 신문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짚어낸다.

‘르 몽드’는 그의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성격 덕분에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프랑스 사회에서 벌어진 냉전 시대의 국제적 긴장감△제5공화국 출범△1968년 5월 혁명 등 일련의 중요한 사건들은 해당 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졌으며 이후 형성된 사람들의 시각은 종종 신문이 단순한 뉴스 매체를 넘어 정치와 사회의 토론장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최 연구자는 이 비판적 성격이 프랑스 사회 전체의 민주적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

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르 몽드’의 역사에 대한 서술에 그치지 않으며 현대 언론의 역할에 대해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르 몽드’가 그동안 보여준 △독립적인 편집 방향△사회적 책임△정치적 역할은 오늘날의 언론 환경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준다. 우리가 바라보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언론이 사회와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급성장 속에서 전통적인 신문이 어떻게 자리를 지켜가며 사회적 담론을 이끌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책은 언론사 연구서를 넘어 현대 언론의 본질과 역할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중요한 작품이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언론의 현실을 볼 때 우리는 언론의 △공정성△독립성△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이 정보 전달자 이상의 역할을 하며 공익을 위한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서 우리 사회의 중심에 놓여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언론의 역사만을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언론의 미래를 성찰하며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길 수 있을 것이다.

정소희 기자 09sohee@hufs.ac.kr

영화칼럼 [영화로 보는 세상]



[영화 ‘보통의 가족’을 보고] 가장 보통이란 무엇인가

‘보통의 가족’은 평범한 두 가족 사이의 신념과 본능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를 보는 내내 ‘나였으면 어땠을까?’란 생각을 했다. 평범한 인생을 추구하지만 누구보다도 이기적이었던 그들의 삶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삶과도 비슷하지 않을까? 이 영화에서 주인공인 재완은 물질적 욕망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변호사다. 그는 자신의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라면 살인자의 변호도 서슴치 않는 사람이다. 그는 부인과 사별 후 만난 두 번째 부인 지수와 그의 딸 혜윤과 살고 있다. 다음으로 재규는 재완의 동생으로 강직한 성품을 지닌 외과의사이다. 그는 신념을 중시하면서 살아왔으며 어려움에 처한 여러 사람들을 살리고 주변의 평판도 좋은 의사였다. 그의 아내 연경 또한 봉사 단체에서 일하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착실한 부인이다. 그 둘 사이엔 아들 시호가 있는데 이 아들 또한 착하지만 소극적인 성격 탓에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을 가진 둘이지만 성격 및 가치관에서 완전히 다른 차이를 보이는 둘 사이에 예상치 못한 비극이 찾아온다. 바로 재완의 딸 혜윤과 재규의 아들 시호가 노숙자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만든 것이다. 이에 대해 처음 두 가족의 반응 또한 엇갈린다. 재완은 자신의 딸이 처할 사회적 질타를 생각해 이번 사건을 덮으려한다. 하지만 재규는 자신의 아들이 누워치도록 이번 범죄를 자수하길 권한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악에 취한 인물이 선

으로 변하고 선에 취한 인물이 악으로 변하는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한다. 그 이유는 바로 딸과 아들의 CCTV 속 대화 내용에 있었다. 이를 듣고 충격을 받은 재완은 재규의 가족에게 찾아가 자신들의 자식들을 자수시키자는 의결을 낸다. 하지만 아들의 누워침이 비록 연기더라도 보통의 인생을 위해 그는 자식들의 범죄를 밝히지 않으려한다. 결국 끝까지 않을 다툼을 한 그들의 이야기는 재완의 교통사고로 막을 내린다.

평범하게 살길 원했지만 살인이란 최악의 선택으로 자신들의 평범함을 포기한 이들의 모습은 인간의 불완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이 영화가 끝나고 ‘보통이란 무엇일까?’란 생각을 했다. 우리는 보통의 삶을 원하지만 △권력△돈△명예에서만만큼은 보통보다 더 우위를 점하고 싶어한다. 또한 안정적인 보통의 가정을 원하지만 부와 명예는 보통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란 의문이 들었다.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보통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과 많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평범함을 추구하지만 결국 인간은 완벽한 보통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됐다.

한소영 기자 09soyoung@hufs.ac.kr

1098호 학보를 읽고

한 해의 마무리에서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선 눈이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겨울의 문턱에서 우리는 계절의 끝자락을 느끼고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준비하며 나의 마음은 한결 여유로워졌지만 외대학보는 여전히 학교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다. 1098호에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학내 사건들이 다뤄지고 그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을 다시 되새길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3면 준기획에선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을 살펴보고 있다. 우리학교는 관련 법률과 학내 규정에 따라 매년 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예방교육 미이수 시 성적 열람에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의 학생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한 교육 영상의 내용이 매년 유사하고 질이 다소 낮다고 평가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강제성에 의해 교육 영상을 틀어놓기만 할 뿐 실질적으로 수강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 내용 개편과 다양한 교육 방식 마련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3면 후속보도에선 우리학교의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내 혐오 표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우리학교의 에타에선 △성별△인종△성향△성별대립△성별대립 등의 특정 주제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견 교류를 넘어 혐오와 비난으로 변해 학생들 간 갈등을 심화시킨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익명성을 꼽을 수 있

다. 건전한 온라인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선 에타 운영 방식의 개편과 혐오 표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 변화를 통해 상호 존중하며 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길 바란다.

4면 기획에선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언어 능력 시험(이하 FLEX 시험)의 현황을 다루고 있다. FLEX 시험은 언어 전공 학생들이 졸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관문 중 하나이다. 그러나 높은 중요도에 비해 FLEX 시험을 위한 공부 환경 및 수단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험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음성 자료 및 기출 문제 등이 제공되지 않으며 공식 교재는 출판된 지 오래됐기에 실제 시험의 유형과 다르다. 더불어 공인력에 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FLEX 시험에 대한 학습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학생들의 요구에 맞는 자료와 교재 향상은 물론 효율적인 학습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학교 측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한 학기가 저물고 종강을 맞이하며 우리는 학내 문제들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한다. 학보는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내며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 이제 학생들과 학교가 함께 협력해 내년엔 보다 나은 교육 환경과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1098호 학보를 읽고

변화를 위한 목소리

겨울이 다가오며 한 학기의 마무리도 어느덧 눈앞으로 다가왔다.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며 우리학교와 학생 모두 월동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외대학보 1098호에선 △폭력예방교육△혐오표현△FLEX 시험△총학생회 공약 이행 평가 등 학내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3면에선 폭력예방교육의 실효성과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이하 에타) 혐오표현 관련 후속보도에 대해 다뤘다. 우리학교의 폭력예방교육은 성적열람 제한을 통해 이수의무를 부여했지만 학생들은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다. 해당 기사에서 다룬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폭력예방교육 실효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설문조사 결과 중 추상적인 교육 내용이 주를 이룬다는 학생들의 응답에 공감할 수 있었다. 폭력 예방은 학내에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 학내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폭력예방교육이 되길 소망한다.

3면 후속보도에선 에타 혐오표현의 현황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뤘다. 에타 내 혐오표현은 이전부터 꾸준히 들려오던 논란 중 하나였다. △설문조사△성별대립△성별대립 모두 익명이라 방해에 숨어 무분별한 혐오 표현으로 갈등을 확산하는 논쟁이다. 에타 운영 방식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앞선 문제는 다양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익명성의 병폐를 담고 있다. 결국 에타를 사용하는 학생의 인식 변화와 법적 제재 강화가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학생 개개인이 타인의 입장을 고려한 책임감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사용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기대한다.

4면에서 다룬 FLEX 시험은 학생의 다양한 요구사항과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해 알 수 있는 기사였다. 어문 계열 학생들의 졸업 필수 요건으로 자리 잡은 시험인 만큼 학생들이 토로하는 불편에 대해 다양하게 다룬 점이 인상 깊었다. 특히 우리학교가 자부심을 느끼는 시험이기에 다른 공인 여학 시험의 사례를 통해 FLEX 시험이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한 점과 우리학교의 언어 교육 환경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사였다.

5면에선 양캠퍼스(이하 양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공약 이행 평가에 관한 기사를 엿볼 수 있었다. 총학은 학내 문제 해결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한 학생 대표 주체다. 이번 기사를 통해 양캠 총학의 활동과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서울캠퍼스 총학의 경우 44개의 공약 중 완료 및 추진 중인 공약이 30개였고 글캠 총학의 경우 19개의 공약 중 완료와 이행 중인 공약이 13개였다. 하지만 양캠 학생이 느끼는 총학 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사뭇 달랐는데 이는 총학의 적극적인 소통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진다. 상대적으로 부정적 평가가 많은 글캠 총학 또한 보완점을 마련해 우중의 미를 거두길 희망한다.

겨울의 추위가 심할수록 봄의 나뭇잎이 푸르다는 말이 있다. 우리학교 안팎에 남은 문제 또한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성장통임을 느낀다. 학생들의 불평보다 더 무서운 건 무관심이다. 우리의 목소리가 만들어냈던 3주제 총장선출제가 폐지될 위기를 맞이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건 변화를 위해 다시 한번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외대학보 기자들 모두가 이 시대의 등불이 되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모아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길 희망한다.



국 · 부장 고정칼럼

굿 바이, 외대학보

별써 이번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찾아왔다. 그와 동시에 낯은 한결 더 추워진 모양이다. 이번 달은 내게 또 다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내가 외대학보에서 활동하는 마지막 달이기 때문이다. 지난 해 수습기자로서 외대학보사실에 처음 들어와 그 풍경에 당황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편집장으로서 외대학보사실을 떠나게 된다니, 시간은 참 빠른 것 같다.

이번 외대학보 1099호는 종강을 앞두고 발생한 여러 사안들을 다루고 있다. 먼저 준기획에선 제59대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 과정과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번 해 제58대 설캠 총학인 '여운'이 '도약'에 이어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차기 출범할 '박동' 또한 학생들에게 인상 깊은 추억을 가져다주는 총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뒤이어 기획에선 최근 외부인 출입 문제로 홍역을 겪고있는 글로벌캠퍼스(이하 글캠)의 사정을 다루고 있다. 글캠에 위치한 '명수당'의 가을 경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지며 감당하기 어려운 수의 외부인이 글캠에 몰리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여러모로 부족해 여러 학내 구성원은 심각한 불편을 겪었다. 겨울이 되며 외부인들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다음 해에 이러한 불편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겠다.

더불어 학술에선 이번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과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교열을 보며 매우 흥미롭게 읽

어나갔던 것 같다. 각 국가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갈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았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인물에선 김지영 티웨이(T-way) 선임교관(이하 김 교관)을 만나봤다. 인터뷰에 직접 참석했었는데 기사에도 담겨있지만 생각 외로 승무원은 '만능 선수'여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또한 대다수의 승무원들이 자신의 직업의 사명감을 품고 일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김 교관이 인터뷰 중에 언급했던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 또한 곧 외대학보를 떠나 사회로 나가는 내게 도움이 많이 됐다.

외대학보에서 머무르는 동안 힘들었던 시간도 있고 행복했던 시간도 있었다. 그럼에도 더 나은 외대학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또 더 나은 한 호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그랬기에 후회도 미련도 없다. 내 뒤를 이어 이 일을 묵묵히 해나갈 믿음직스러운 인원들이 있기에 걱정 또한 없이 떠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내 손을 거친 기사를 읽어준 모든 독자에게 감사사를 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남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우현 편집장 07woohyun@hufs.ac.kr



부엉이 메신저



우와 시험이 두 주나 남았다고? 럭키비키자나~

-익명-

아니 눈 실화나

-익명-

모현 그냥 아렌델 그 자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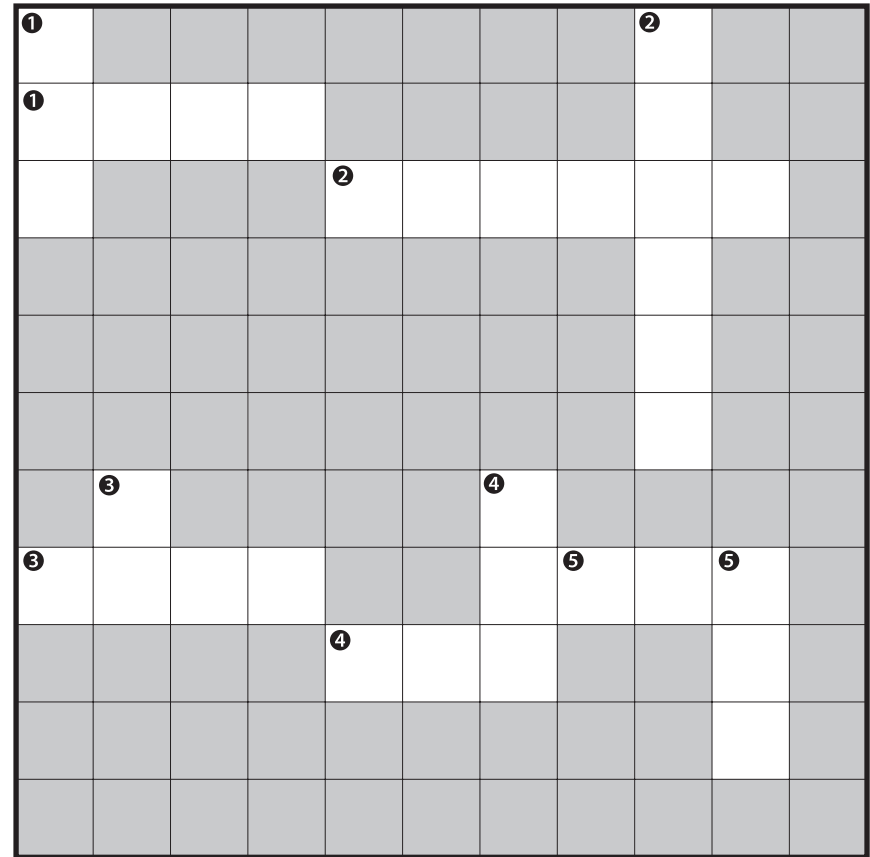
-화석 아저씨-

지하철 너무해 ㅠㅠ

-1호선 통학러-



십자말풀이



- 가로**
1. 지난달 23일과 24일 우리학교는 서울캠퍼스에서 2025학년도 ○○○○ 논술전형의 논술고사를 실시했다. (2면)
 2. 우리학교는 2024년도 ○○○○○○ 선발시험 6명 배출했다. (1면)
 3. 남자 선수가 특정 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낼 경우 ○○○○를 받을 수 있다. (8면)
 4. 지난 20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이하 설캠)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제 4회 HUFStory ○○○' 가 개최 됐다. (1면)
 5.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인해 국제 사회의 안보 위기가 고조 되고 있다. (9면)
- 세로**
1. 지난달 각종 매체를 통해 우리학교 글캠의 ○○○ 및 근방 산책로가 가을 단풍 명소로 소개되며 교내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4면)
 2. ○○○○○○는 개인에 대한 의료를 개인이 아닌 국가가 사회보장의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나타난 사회보장제도이다. (7면)
 3. 우리학교 지식출판콘텐츠원이 발간한 도서 '노벨문' 학상과 ○○○이아기' 가 '2024년 문학나눔 도서 보급 사업' 에서 수필 분야 추천 도서로 선정됐다. (1면)
 4. 승무원은 모든 순간이 ○○○이기에 절대 혼자서 움직일수없는직업입니다. (12면)
 5. 우리학교 ○○○과는 지난달 25일 우리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에서 2024 세계 아랍어의 날 기념 학술문화제를 개최했다. (2면)
-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인스타그램 계정 (@hufspress_official)을 팔로우 하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두 분에 한해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사설

인공지능, 일상의 편리를 넘어

인공지능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의 동반자로 자리 잡았다. 스마트폰 음성 명령으로 일정을 관리하고 인공지능이 추천한 경로로 출퇴근하며 개인화된 뉴스피드를 읽는 모습은 이제 낯설지 않다. 넷플릭스(Netflix)멜론(Melon)유튜브(YouTube) 등 플랫폼은 개인의 취향을 분석해 맞춤형 콘텐츠를 추천하며 인공지능은 여행 계획까지도 세부적으로 개인화해 지원한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일상의 편리함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인공지능의 활용 범위를 일상의 편리함에만 국한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인공지능의 진정한 가치는 일상적인 편의를 넘어서 학업과 업무의 영역에서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데이터 분석△보고서 초안 작성△복잡한 아이디어의 체계적인 정리△정보 검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다. 더불어 인간의 창의적 사고를 자극하고 문제 해결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특히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작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더 깊이있는 연구와 창의적인 과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데이터 시각화△맞춤형 학습 플랫폼△코딩(coding) 보조 도구△통번역 등 인공지능은 다양한 분야에서 학습과 업무의 질을 한 차원 높이며 학생들과 전문가 모두에게 새로운 통찰과 도전의 기회를 열어준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보조를 넘어 인간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확장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인공지능을 여가와 편리함을 위한 도구로 여기며 이를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인공지능을 학업과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끌어내야 한다. 물론 인공지능의 한계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도 필요하다.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결과는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를 맹목적으로 수용할 경우 창의적 사고와 판단력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은 답을 제시하는 도구라기보다 더 나은 질문을 이끌어내는 동반자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공지능은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다. △인간의 사고를 확장하고 △문제 해결의 경계를 넓히며△우리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이끈다. 학업과 업무에서 인공지능을 전략적 동반자로 삼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 우리는 이 강력한 도구를 활용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고민해야 한다. 인공지능과 우리의 창의력이 결합될 때 미래는 우리가 설계하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지성욱(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외대학보 편집인 겸 주간)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난호를 말하다'에 응모해주신 분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e-mail : 07woohyun@hufs.ac.kr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박정운
편집인 겸 주간 지성욱
편집장 남우현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외대로 81 학생회관 211호
www.hufspress.net

세계의 하늘을 품은

김지영

승무원을 만나다

김지영(영어학부·영미지역학부 00) 훈련관(이하 김 교관)은 에미레이트(Emirates) 항공의 객실승무원 및 부서무장으로 근무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경험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그녀는 우리나라 최초의 저비용항공사 티웨이(T'way)에서 △객실사무장△면접관△훈련교관을 거쳐 현재는 기장과 부기장의 훈련을 담당하고 있다. 19년 동안 항공사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다양한 경험을 한 김지영 교관을 만나 승무원에 대해 알아보자.

Q1. 우리학교 영어학부에 입학하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릴 적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영어와 관련된 삶을 살고 싶었기에 전공도 항상 영어만 고집했습니다. '어떤 대학이 가장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란 질문이 학창 시절 저의 최대 관심사였기에 자연스럽게 '한국'과 '외국'이란 키워드가 있는 우리학교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이후 영어를 더 공부하고 싶어 최근에 우리학교와 연계된 사이버한국외국대학교의 TESOL 대학원에서 석사와정을 마쳤습니다.

Q2. 우리학교 재학시절 어떤 학생이었나요?

사실 전공 공부에 열심인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실용 언어나 교양 과목에 더 많은 관심을 뒀죠. 우리학교의 최대 장점이 해당 언어를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 언어와 문화를 얼마든지 배울 수 있던 점입니다. 덕분에 전 동기들과 달리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됐어요. 그러나 사회에 나와 보니 우리학교 영어과 출신이라고 하면 영어 실력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인식 덕분에 저는 영어와 관련된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스레 영어를 잘하게 됐고 우리학교를 통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되려던 목표를 이뤘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학내 영어 뮤지컬 학회를 진행했는데 덕분에 내향적이었던 제가 외향적으로 바뀌는 등 승무원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Q3. 졸업 후 승무원을 택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사실 처음엔 승무원이란 직업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 따라 승무원 학원에 갔을 때 상담 실장님 유혹에 넘어가 등록했죠. 그때부터 승무원이 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준비하는 친구들과 소통하며 승무원이 훌륭한 직업이란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열심히 준비했어요. 도중에 해외항공사 취업 시기까지 당하는 등 다사다난한 준비과정이었지만 정작 '승무원'이란 직업이 무엇인지 항공사에 입사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Q4. 승무원으로서 필요한 능력이나 자질은 무엇인가요?

승무원은 비행기 문이 닫히는 순간 좁은 기내 안에서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처해야하는 직업입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조종사의 존재 이유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는 것이라면 승무원의 존재 이유는 그 과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무대 위 주인공이 돼 이끌어가고 때론 스태프(staff)가 돼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느 하나의 자질이 필요하기 보단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정확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력 △업무 분담력△환경 적응력△빠르고 정확한 상황인식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관련 공부를 통해 생기는 역량은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겪어보는 경험을 통해서만 쌓을 수 있는 역량이지요.

Q5. 장거리 비행을 비롯한 여러 비행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자신만의 체력 및 정신건강 관리의 비결이 있을까요?

장거리 비행 자체가 무리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규칙한 수면 및 식사 시간△새벽 시간대의 업무△잡것은 이차륙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체력 관리와 식단

관리는 필수입니다.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체중을 과도하게 신경쓰시는 경향이 있지만 체중 및 인바디(Inbody) 수치보다 중요한 건 전체적인 건강이에요. 또한 승무원은 △급변하는 업무 환경△불규칙한 스케줄△사람과의 관계 등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Stress)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본인만의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과 잘 소통하고 스스로를 아껴주셔야 합니다. 저는 △비폭력대화△상담심리학△코칭(Coaching)을 전공했고 제 동료들은 △등산△마라톤△명상△복싱△요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마음△몸을 챙기고 있습니다.

Q6. 승무원 생활 중 좋았던 기억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마 모든 승무원의 행복한 기억은 △생명이 위험한 승객이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될 때△승객들이 내리면서 두 손을 꼭 잡고 감사함을 표시할 때△어린이 승객이 그림과 편지를 써줬을 때△좋은 동료들과 완벽한 비행을 마쳤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좋았던 기억도 많지만 슬프고 아쉬웠던 기억이 사실 더 많습니다. △가족과 친구의 경조사△고인을 모신 유족 승객 앞에서 다른 승객들을 위해 웃어야 할 때△승객이 사망하셨을 때△예측 불가능한 스케줄 준비 등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를 통해 승무원이란 직업을 고찰해보고 더 열심히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Q6-1. 반대로 승무원 생활을 하며 느낀 고충엔 어떤 것이 있나요?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나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에미레이트에서 근무할 시기엔 두바이(Dubai)에서 혼자 생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이에 결국 국내항공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또한 다국적 동료들과의 문화 차이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컸습니다. 어떤 문화권에선 가위바위보 게임을 전혀 모른다고 해요. 부서무장 시절 장거리 비행에서 휴식 시간 순서를 가위바위보로 정했다가 해당 국적의 승무원에게 지적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또한 인종차별 문제는 결코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티웨이 항공으로 이직한 후엔 회사가 점차 성장해나가는 한가운데에 서있다는 것이 재미있으면서도 꽤나 고통스러웠죠. 지금은 'T'way'가 아닌 'Godway'라고 불릴 정도로 승무원들 사이에서 가고 싶은 항공사가 됐지만 초기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달에 공식적으로 5일만 쉬고 비행한 적도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Q7. 에미레이트에서의 승무원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 외국 기업의 입원 분이 아래와 같이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은 인간사의 모든 것을 경험한 이들이다. 그들은 편안함을 벗어난 생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당신이 감히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문화 이상을 겪어본 이들이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다룰 수 있으며 △인내△절제△표현의 균형을 안다'고 에미레이트 출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신 게 기억에 납니다.

Q8. 승무원 생활 중 팀워크(Teamwork)가 중요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승무원은 모든 순간이 팀워크이기에 절대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직업입니다. 모든 부분에서 업무 분담이 확실히 이뤄져 있고 이 과정에서 서로 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팀워크 및 소통

과 관련된 정기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항공사에서 사고 발생 시 인적 오류와 관련해 가장 먼저 보는 부분도 소통과 팀워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인관계 능력이 정말 중요한 직업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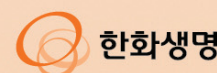
Q9. 항공 승무원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일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원래부터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원하는 활동이 적성에 잘 맞는 편이었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일했지만 가장 잘 맞는 부서가 객실 훈련팀과 현재의 운항 훈련팀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배우고 얻는 부분 또한 크고 배움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의 밝은 표정을 보면서 교육할 때 보람과 성취감이 컸습니다. 교육이야말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이라고 생각하기에 실제로 지금도 승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의 멘토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Q10. 승무원을 꿈꾸는 우리학교 후배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선 승무원을 떠나 해당 직군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옛날엔 면접 준비만 열심히 하면 승무원이 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직무역량을 중요하게 보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스펙 관리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나는 얼마나 준비가 되었는지△승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필요한 자질은 무엇인지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파악하고 준비하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또한 항공사마다 성격도 정말 다릅니다. 같은 삼성계열이라고 해도 삼성전자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과 에버랜드(Everland)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 다르듯이 단순히 △국내항공사△외항사△대형 항공사△저비용 항공사로만 접근하시면 곤란합니다. 각 항공사의 △기업이념△운영 분위기△인재상이 완전히 다르기에 본인에게 잘 맞는 항공사를 선택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이 되고 나서의 모습을 그려보시는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 승무원 되고 나서 얼마 안돼 그만두는 분들이 많거든요. 승무원도 결국에는 인생이란 선 위의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어디까지나 잘 살기 위한 수단이 돼야지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을 치열하지만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합니다.

최소윤 기자 09soyoon@hufs.ac.kr



건강하다면 계산해 보세요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무)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한 당신이라면
이제 보험료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세요! 건강하다면 혜택이 더 크니까요



한화생명 H10 건강보험(무)

☎ 080.365.6363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위험 직군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로 합니다. 일부 보장의 경우 가입 후 1년 이내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시 1년 이후 지급금의 50%만 지급합니다. 일반 금융소비자는 한화생명보험(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 1년입니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6020호 (2024-09-24 ~ 2025-09-23)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4-09-089

www.hanwhalife.com